

낙서와 그래피티운동

작가 오승희

에피그램(epigram)은 격언시(格言詩)라고 번역되고 있는데, 경구같은 짧은 풍자시를 말한다. 불의의 경악 또는 기지(機智)의 전향(轉向)에 접하였을 때 표현하는 짧은 시(詩)를 지칭한다. 보통 8행(行) 정도인데, 어원은 비명(碑銘)의 뜻을 나타내는 그리스어(語) 에피그램마(epigramma)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예초에는 기념비 등에 새겨진 시를 일컬었으나 뒤에 어떤 사상을 단적으로 시술한 단시(短詩)를 뜻하게 되고, 또 풍자시나 경구(警句)를 가리키게 되었다.

그리스의 시인 시모니데스(Simonides: B.C. 556-468) 예시는 처음이란 뜻이 있었고, 로마의 마르티알리스(Martialis) 이후에는 현재에 쓰이는 격언시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영국에서의 가장 지명한 경구가(警句家) 혹은 짧은 풍자시작가 곧 에피그램작가(epigrammatist) 고전파 시인 포프(A. Pope: 1688-1744)로, 그의 시는 극히 비묘하고 유장하였다.

수필(隨筆)은 어떤 양식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산문(散文)문학의 한 부분이다. 인생과 자연에 대한 수상(隨想)·수감(隨感)·단상(斷想)·논고(論考)·잡기(雜記) 등이 포함된다.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혹은

붓가는 대로 어떠한 일정한 형식(形式)이 없이, 자유롭게 보통 1~2페이지 또는 많게는 30페이지 가량 되게도 쓴다. 개성적(個性的)이며 관조적(觀照的)이고 또는 인간성(人間性)이 내포되므로, 워트(wit) 유머(humor) 예지·기지(機智)로서도 표현한다.

다시 말해서, 수필은 형태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인생과 자연에 대하여 보고 느낀 것을 생각나는 대로 써나가는 산문형식의 짧은 글을 말한다. 보통, 경수필과 중수필로 나뉜다. 그래서 만문(漫文)·산록(散錄)·상화(想華)·에세이 등으로도 불린다.

경수필(輕隨筆), 혹은 연(軟)수필은 일정한 주제보다는 잡다한 상념이 중심이 되고, 사회적인 문제보다는 개인적인 문제를 주로 다룬다. 그래서 논리적인 판단보다 주관적이거나 감성적 표현이 우세한 그러한 수필을 말한다. 형식이나 격식을 차리지 않는 홀가분한 약식의 인포멀 에세이(informal essay)라고도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와는 반대로, 중수필(重隨筆)은 주로 공적(公的)인 문제를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시술하는, 비개성적

(非個人的)인 수필을 지칭한다. 일명 경수필(硬隨筆) 또는 형식적인 글이라는 뜻의 포멀에세이(formal essay)라고도 칭한다.

글자 그대로, 그때그때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볼 붓가는 대로 적어낸 글이라는 수필을 뜻하는 영어가 에세이(essay)다. 영어의 essay는 물론 수필도 뜻하지만, 또 문예상의 소론(小論)이나 시론(試論)과 평론까지도 의미한다. 원래는 시도·시험·노력을 의미하며 원초적으로는 <해보다>에서 유래하고 있다.

또 주필(走筆)이라는 말이 있는데, 예전 고리시대에는 지금의 수필의 대용(代用)이었다고 하나 확실하지 않다. 지금은 주필(running script)은 글씨를 흘려서 빨리 쓰는 것, 혹은 재빠르게 쓴 글씨를 지칭한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낙서(落書)가 있다. 글씨나 그림 따위를 장난으로 아무데나 함부로 쓰는 것인데, 일명 낙필(落筆)이라고도 한다. 외국에서는 여기저기 어디에서나, 실내외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 특히 라틴계열의 다원전적인 국민에게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중변소나 대학가의 담이나 벽위에 흔히 찾아볼 수 있다. 동시양 어디나 공통으로 경구적(警句的) 성격이 강한 것들이 보통이라고 한다. 즉 기만한 생각이나 도박상 혹은 예술상의 진리를 간결하고 날카롭게 표현한 단구(短句)가 대부분인 것이다. 가령, 인구에 회자하는 파스칼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따위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낙서는 크게 개인적인 것과 공개적인 것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개인적인 것은 주로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것으로 대개 자기의 일기장이나 잡기장(雜記帳)을 주로 이용한다. 반대로 공개적인 것은 남이 잘 볼 수 있는 벽과 담이나 일반대중이 자주 드나들어 흔히 볼 수 있는 공중변소와 같은 공공장소와 같은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잡기(雜記)는 여러 가지 일을 전지없이 적는 것으로, 잡록(雜錄) 또는 잡필(雜筆)이라고도 한다. 신변(身邊)잡기가 그 대표적인 것이다. 어떤 것은 개인적으로 노트를 하다가 나중에 공개된 것도 있다. 이렇다면 조선조 영조·정조 연간의 학자 순암(順菴) 안성복(安鼎福)이 지은 잡기가 바로 그것인데 《잡동산이(雜同散異)》는 53책으로 되어있고 내용이 방대하여 잡다하기는 하나, 오늘날에 와서 백과사전적인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 고대민속의 일종으로 잡희(雜戲)가 있었다. 이것은 팔관회(八關會)가 오락화한 것으로 추증된다. 팔관회 때에 열리는 잡기회(雜技戲)를 말한다. 백희(百戲)에는 김낙(金樂)·진송겸(中崇謙)의 가상희(假像戲)·처용희(處容戲)·소인극(素人劇) 등의 종류가 있으며, 기악(歌樂)까지 부른 예가 있다고 전한다. 그리하여 가면극·처용부·짐부 등의 만달을 죽진시키고 디 나아가 음악과 가극의 진보를 조성하였다. 그리하여 고려말기에 이르러 종합하여 집대성(集大成)시켰고, 그 후에는 산대극(山臺劇)으로 발전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그래피티운동(graffiti 運動)은 미국에서 벌어졌던 일종의 낙시운동이었다. 원래 낙수형인 graffiti는 고고학(考古學)에서는 벽이나 마위에 긁어서 그린 그림이나 문자를 말한다. 복수형 graffiti는 크게 보아서 낙서를 지칭하고 있다. 이태리어의 동사(v.) graffiti에서 유래했는데, 원래는 손톱 같은 것으로 “긁기다, 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뉴욕에서는 1960년대 중반 무렵부터 거리도처에 낙시가 범람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낙시하는 사람은 대개 흑인이나 푸에르토리코인(人) 등 주로 소수민족인데 극체력과 격렬한 힘을 구사한 속도감 넘치는 그림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도안화된 문자나 그림을 기리의 벽과 지하철 같은 곳에 여기저기 그리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낙서를 예술로서 평가하기 시작한 것은 이탈리아에서의 아트페스티발이 최초였지만, 근래에 와서 뉴욕에서는 그것들이 일약 상품가치를 가지게까지 발전되었다고 한다.

낙시와 비슷한 것이 또 있는데 그것이 수기(手記)다. 수기는 자기의 체험을 손수 적은 것인데, 그 기록도 포함해서 지칭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소설화된 릴케의 《말테의 수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릴케(R.M. Rilke: 1875-1926)는 20세기 독일시의 제1인자라고 높이 평가되고 있다. 담백하고 감상적인 시풍이 러시아의 풍토를 접하자 신비적인 내면의 방향으로 심화(深化)되었다. 다시 로댕의 영향으로 그 내면성을 조형예술처럼 엄격한 윤곽 속에서 표현하려고 시도하였다. 만년의 시작

(詩作)에서는 삶의 허무를 탄식하면서도 탄식 그 자체는 깊은 내면세계의 찬미로 승화하여, 현대인이 지닌 영혼의 궁극적인 시적표현을 달성하였다.

20대 중반에 러시아를 여행하여 대지에 밀착된 인간 생활을 보고 삶에 대한 눈을 뜨고 파리에서 로댕의 미서가 되어 조각적 예술방법을 배워서 터득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스위스로 옮겨가서 이곳에서 대표작을 완성하였다. 작품으로는 《시도시집(時禱詩集)》과 조형시(造形時)의 정집이라고 평가되는 《신시집》이 있다. 그리고 독일산문의 새로운 차원을 개척한 기괴한 환상의 지시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말테의 수기》와 역시 현대서정시의 극점(極點)으로 평가되는 《두이노의 비가(悲歌)》가 있다.

릴케가 만년에 쓴 걸작 《두이노의 비가(Duineser Elegien)》는 모두 10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2의 비가는 1912년에 그리고 전편은 1922년에 완성되었다. 릴케가 이 시에서 그린 것은 무상한 존재요 항상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무기력한 인간이 이 지상에서 도대체 어떤 사명을 갖고 태어나서 있느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편적인 시민생활이나 예술가 등의 삶의 방식이 바뀌지고 있는데, 그것이 모두 허위를 본질로 한 것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결국 인간의 사명은 지상의 사물을 내면화하고 영원화하는데 있다고 그는 감히 결론지었다. 장중하고 심각한 상징적 표현으로 넘쳐있는 이 위대한 10편의 비가(悲歌)는 20세기 서구시(西歐詩)의 절정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으며 독일, 프랑스, 영국의 시인들에게 끼친 영향이 대단히

크다.

릴케의 대표적인 산문작품 《말테(Malte)의 수기(手記)》의 원명은 좀 길다 : Die Aufzeichnungen des Melte Laurids Brigge. 1910년에 간행되었는데, 소년다운 즐거움의 기의 찾아볼 수 없고 파리에 살고 있는 한 이름 없는 젊은 시인의 내면적 생활체험을 익숙하고 훌륭하게 묘사하였다. 도시생활의 불안, 고향에서의 어릴 때의 추억, 독서에서 얻은 정신적 체험을 직나라하듯 기술하면서 그 속에 깔려 있는 릴케 자신의 내면적 고투(苦闘)의 진한 어운과 흔적을 그려놓았다.

릴케는 인간의 죽음과 사랑이 현대문명 속에서 매우 값싼 것으로 전락하여 몰락된 것을 심히 개탄하였다. 게게인이 고유의 죽음을 가지며 사랑이 소진(消耗)해 버리지 않고 무한히 흐르는 삶을 그리서, 말테의 상념(想念)은 지난날의 사람들의 위대한 사례에 닿을질친다. 궁극적으로는 말테는 현대의 세태에 구제받지 못하고 쓰디이는 절망에 빠지고 만다. 그러나 작자는 이 작품을 부정에서 긍정으로 이끌기 위한 사진의 음화(陰畵: negative)와 같은 것으로 모아 달라고 곁에 가서 애절하게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다. ●

